사 훈

밝은 불성의 개발(佛)
바른 생활의 창조(法)
맑은 사회의 실현(僧)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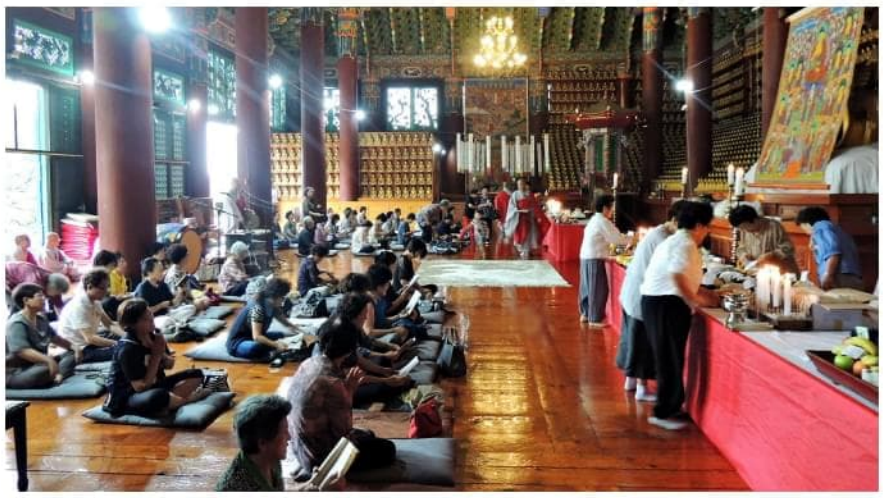
奉元寺報

발행인 이철호(운봉)
주 간 조석연(현성)
편집인 황영상
인쇄인 준빈기획
발행처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TEL 392-3007~8
FAX 393-9450
http://www.bongwonsa.or.kr
등록일 1998년 1월 6일 등록번호 라 08352

2020년(불기 2564년) 8월 1일 토요일(음력 6월 12일) 봉 원 사 보 제281호

일체의 재난(災難)을 없애고 자손의 만덕(萬德)을 기원

– 한민족 민간 설화와 민속신앙 색채가 어우러진 칠석불공의 의미 –



불교에서는 매년 음력 7월 7일 칠석(七夕)이 되면 전국의 사찰에서 칠성(七星)의 주존불(主尊佛)이자 북극성을 뜻하는 치성광(熾盛光) 부처님께 정성 어린 재(齋)를 올린다. 그리하여 불자들은 가족들의 수명장수와 가정평화를 기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세시명절인 칠석재이다.

이와 같이 칠석에 불자들은 치성광 부처님을 중심으로 일곱 개의 별로써 이루어진 북두칠성(北斗七星)을 배치한 만다라를 내걸고 자손들이 대대손손 창성하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을 모아 간절히 축원한다. 또한 이날은 칠성님께 자신의 소원성취를 마음껏 빌어도 좋은 날이다.

치성광 부처님은 일광보살님과 월광보살님을 좌우의 보처보살((補處菩薩)로 하시고, 북두칠성인 칠성군(七星君)과 많은 성군(星君)들을 휘하에 거느리고 계시면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칠석에 즈음하여 성대한 재를 열어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으로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복덕을 바라며 서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칠석 행사는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행해지고 있었으며, 불교가 전래된 뒤에는 불교의식의 하나로 받아들여져 자리가 잡혔다. 또한 이날은 견우와 직녀의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하늘의 목동인 견우(牽牛)와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織女)가 서로 사랑에 빠져 일은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자, 화가 난 옥황상제는 그들 두 사람을 은하수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 놓았다. 두 남녀가 애타게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다 못한 까치와 까마귀들이 매년 7월 7일(칠석) 밤이 되면 옥황상제 몰래 하늘로 날아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다리를 놓아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주었다. 그래서 까치와 까마귀는 모두 머리가 벗겨지고, 이날 저녁에는 만남을 기뻐하는 두 사람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며, 다음날에는 이별을 슬퍼하는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린다고 한다. 참으로 애절하고 슬픈 전설이다.

오늘날 북두칠성은 칠여래(七如來)로 불교화되어 받들어지고 있다. 그 중 제1성(星)인 탐랑성군(貪狼星君)은 남서쪽을 다스리며 낮을 지배하는 분으로,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 덕을 내려 주신다. 제2성은 거문성군(巨門星君)으로 서쪽을 다스리며 밤을 지배하는데, 중생들의 모든 장애를 없애 주신다. 제3성은 녹존성군(祿存星君)으로 거문성군과 함께 서쪽을 다스리며 불을 지배하는 성군으로, 업장 소멸의 소임을 맡고 있다. 제4성은 문곡성군(文曲星君)으로 북쪽을 다스리며 불을 지배하는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일을 하신다. 제5성은 염정성군(廉貞星君)으로 북동쪽을 다스리며 모든 보물을 맡고, 중생들의 장애를 없앤다. 제6성은 무곡성군(武曲星君)으로 동쪽을 다스리며 예술 분야의 일들을 지배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복덕을 갖추게 해 주신다. 그리고 제7성은 파군성군(破軍星君)으로 남쪽을 다스리며 모든 질병을 지배하여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다.

옛부터 우리의 민속 신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칠성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특히 칠석날 밤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정을 통하는 날이므로 많은 이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소원성취(자식점지)를 기원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은 인간사의 길흉화복을 다스리는 칠원성군(七元星君)에게 정성들여 "낮과 밤이 순리대로 교차하고, 물과 불이 적당하게 배포됨은 물론 재보(財寶)와 지예(智藝)를 주시고, 질병을 물리쳐 달라."는 기원을 하곤 했다. 칠성신앙은 불교와 융합된 이후 부처님의 자비를 구하고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도록 이끌어 달라는 참기도의 내용이 덧붙여져서, 명실상부 여법한 불교의식의 하나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다.

수명장수(壽命長壽) 기원, 칠석 불공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신도님 댁내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시길 삼보전에 축원드립니다.
올해에도 예년과 같이 칠석 불공을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시어 자손의 부귀영화와 더불어 무병장수와 소원성취를 이루시길 바라며 무더운 여름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 내

- **일 시** : 2020년 8월 25일(음력 7월 7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매시간 불공을 모십니다)
- **장 소** : 봉원사
- **문 의** : 각 화주 스님 및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 원 사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독성도, 약사불회도, 산신도

산신도(山神圖)

봉원사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한 문화재가 서울시의 사전 조사와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과, 2020년 5월 7일 서울시보(제3585호)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계획 공고되었다. 지정 예정된 문화재는 독성도(獨聖圖), 약사불회도(藥師佛會圖), 산신도(山神圖)로, 이번 호에서는 산신도(山神圖)를 소개하고자 한다.

봉원사는 영조 24년(1748) 딸인 화평옹주(1727~1748)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친히 땅과 편액을 하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조의 동복형인 의소세자(1750~1752)의 원당으로 지정하여 명실공히 왕실사찰로서 도량의 위상을 갖추었다.

'봉원사 산신도'는 만월전에 봉안되었던 불화로서 현재는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만월전은 약사유리광여래를 주불로서 상단에 모시고 있으며, 1904년 산신단을 만들어 1905년에 산신도를 봉안하였다. 현재 산신도는 훼손과 도난 방지를 위해 유리가 있는 사방 두께 8cm의 나무틀 액자에 끼워져 있다. 폭 90cm, 가로 152cm 정도로 비단천을 마름질하여 가로로 이어 바탕천을 마련하였다. 식서*방향을 화면의 세로에 맞춰 바탕천을 잇는 방식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불화에서 종종 보이는 방식이다. 이 불화는 원래 신중도, 현황도, 감로도, 구품도, 삼장도와 함께 그려졌던 불화로, 안타깝게도 만월전에 봉안되어 있던 산신도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1991년 봉원사 대웅전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다.

화면에는 폭포가 흐르는 깊은 산중에 소나무를 배경으로 하여 산신과 호랑이, 동자 2명을 배치하고 있다. 화려한 옷깃 장식이 그려진 붉은색 도포를 입은 산신은 왼손에는 깃털부채를 쥐고 오른손으로는 수염을 만지며 꼿꼿하게 의자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밝은색으로 채색된 얼굴은 가는 붓을 사용하여 얼굴의 주름과 인상을 세밀하게 표현하였고, 위엄이 느껴지는 장대한 체구에 비해 얼굴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산신은 붉은색의 포와 안에는 어깨에 용 문양이 그려진 청색의 용포(龍袍)를 받쳐 입고 있어 왕과 같은 위엄이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산신과 왕이 결합된 산왕의 이미지는 19세기 전반경부터 산왕경(山王經)이 간행되는 등 산신에 왕의 속성을 부여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산신의 왼쪽으로는 어깨를 한껏 올린 채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데, 흔히 조선 민화에서 볼 수 있는 호랑이처럼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화면의 향 좌측 하단에는 화기(畵記)가 기록되어 있어 조성배경을 추측할 수 있다.

화기에 따르면 봉원사 산신도는 광무 9년, 즉 1905년 8월 10일에 제작된 것으로 되어 있다. '봉명(奉命)'이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황실의 명을 받들어 조성된 불화를 의미한다. 시주자는 을미생 대기심이라는 법명을 가진 상궁 한 명과 고종황제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강익형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 불화를 그린 금어(金魚)**는 혜과 봉감(慧果 奉鑑), 한곡 돈법(漢谷 頓法)이며, 이들 밑에서 편수로 참여한 인물은 두흠을 비롯한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같은 시기에 법주사에서 제작된 팔금강번은 강문환 등과 함께 정삼품으로 있던 강익형이 임금의 명을 받아 시주를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봉원사 산신도'는 개인의 발원이 아닌 구한말 대한제국 시기에 조성된 왕실발원 불화의 하나로서 의미를 지닌다.

1905년 9월은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어 일본의 강요가 시작되던 시기이다. 그해 음력 8월 왕실이 발원하여 대대적으로 봉원사에 불화를 조성했던 이유는 일제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을 불교에 의지하여 극복하려고 했던 간절함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1905년 왕실발원 불사로 조성된 불화 가운데 오직 산신도만이 남아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봉원사 산신도'는 우리나라의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것이다.

*식서(飾緖) : 올이 풀리지 않게 짠, 천의 가장자리 부분.

**금어(金魚) : 불화, 단청, 개금, 조각 등 사찰 불사의 모든 것을 두루 섭렵한 이에게 칭해진 용어로서, 존경을 담은 호칭으로 쓰인다.

시주접수처 안내

봉원사 도량 내에 새로운 기와불사 및 시주접수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주(施主)란 글자 그대로 '보시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도님들은 새로운 시주접수처에서 시주공덕을 쌓으시어 시련이 사라지고 더 많은 이익과 결실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12시, 오후 1시 - 3시**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수처 시간을 위와 같이 조정, 운영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 원 사

제23장 상유품(象喩品)

화살을 맞고도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코끼리처럼 구도자는 온갖 고난과 고독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가라는 가르침

▸ 어진 사람과 함께할 수 없으면

不得賢能伴 俱行行惡悍 廣斷王邑里 寧獨不爲惡
부득현능반 구행행악한 광단왕읍리 영독불위악

어진 사람과 능히 짝할 수 없어
둘이 함께 사납게 악을 지으면
망한 나라를 버리는 임금처럼
차라리 혼자가 되어 악을 짓지 말라

▸ 어리석은 사람과 짝하지 말라

寧獨行爲善 不與愚爲侶 獨而不爲惡 如象驚自護
영독행위선 불여우위려 독이불위악 여상경자호

차라리 혼자 가서 선을 행할지언정
어리석은 사람과는 짝하지 말라
홀로 있어도 악을 행하지 않는 일
놀란 코끼리가 제 몸을 보호하듯 하라

▸ 죄를 짓지 않아 편안하다

生而有利安 伴溫和爲安 命盡爲福安 衆惡不犯安
생이유리안 반온화위안 명진위복안 중악불범안

살아서는 이롭고 편안하며
친구가 유순하여 편안하며
목숨이 다할 때 복이 있어 편안하고
아무 악도 짓지 않아 편안하네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대서원(大誓願)을 실천하는 날

– 백중(百中, 음력 7월 15일)의 유래와 의의 –

음력 7월 보름인 백중(百中)은 불교의 5대 명절 중의 하나로 백종(百種) 혹은 우란분재(盂蘭盆齋)라고도 한다. 우란분재에서 우란분은 범어 '우람바나(Ulambana)'의 음역으로 '거꾸로 매달린 것을 풀어주고 바르게 세운다.'는 뜻이다. 즉, '우란(盂蘭)'은 도현(倒懸), 즉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이며, '분(盆)'은 '구제한다, 혹은 여의게 한다.'는 뜻으로, '재(齋)를 베풀어 지옥과 같은 악도(惡道)*에 떨어져 고통받는 선망부모를 구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재'는 '우포사다(uposadha)'란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고 행동을 삼간다는 의미이다.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재'이다. 따라서 우란분재는 '고통받는 지옥 중생들을 위해 성대하게 올리는 불공'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 백중에 관한 전설은 다음과 같다.

목련존자는 출가하기 전 대단한 부호의 외아들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많은 유산을 받게 되었다. 목련은 유산을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어머니의 생활비로 드리고, 다른 하나는 또한 어머니께 드려, 돌아가신 아버님의 망령을 위해 3년간 매일 재를 지내 천도하도록 어머님께 부탁을 하고, 나머지는 목련 자신이 가지고 타국으로 장사를 하러 떠났다.

목련은 떠날 때 어머님께 아버님의 천도재를 당부하였지만 3년 만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천도재는 지내지 않고 살생과 음주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후에 목련이 출가한 뒤, 육신통(六神通)을 얻어 혜안(慧眼)**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보니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생전의 과보로 아귀지옥에 떨어져 거꾸로 매달린 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효성이 지극했던 목련존자는 가슴 아파하며 신통력을 발휘하여 어머니를 아귀지옥에서 구해내고자 음식을 가져가 어머니께 올렸으나 그 음식은 어머니의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뜨거운 불길로 변해 버렸다. 어머니는 생전에 지은 죄업이 너무 두터워 아라한이 된 목련존자도 어떻게 손을 써 볼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목련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간청하며 어머니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어 너 혼자의 힘으로는 구제할 수 없구나. 음력 7월 15일 자자(自恣 : 하안거를 마치는 날)일, 곳곳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모였을 때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면 불보살과 여러 스님들의 위신력으로 어머님께서는 구원을 받아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하시며, "이와 같이 성현대중께 공양을 올리면 선망조상과 현세의 부모님, 친족 영가들이 악도에서 벗어나 즉시 해탈하여 복락(福樂)을 누릴 것이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사람은 부모의 여생이 행복하게 되고, 부모가 이미 떠났다면 좋은 국토에 태어나서 무량한 복락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목련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성을 다해 갖가지 음식과 과일 등을 마련해 여법하게 재를 올렸다. 이 공덕으로 청제 부인(어머니)은 물론 함께 지옥에 있던 뭇 대중이 모두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불자들은 매년 음력 칠월 보름이 되면 큰 재를 마련해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들을 위해 천도의식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곧 백중(百中, 百衆, 우란분절)이다.

범망경(梵網經)에서는 "끝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는 동안 육도 중생이 나의 부모와 형제 아님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란분절은 작게는 부모님과 선망 조상님들의 극락왕생과 해탈을 기원하고, 크게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승보살도의 핵심인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대서원을 실천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같이 우란분재는 목련 존자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큰 법회를 열고 갖가지 음식과 과일로 스님들을 공양했듯이 살아있는 이들이 지옥, 아귀, 축생 등 삼악도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알게 되고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행사이다.

우란분재는 이런 모든 망자들을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베푸는 의식이다. 나 혼자만 행복하면 그만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생명체가 다 같이 잘 살자는 불사인 것이다. 따라서 우란분재는 모든 생명을 내 몸 같이 생각하는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으로 행해야 한다.

*악도(惡道) : 악업(惡業)을 지어서 죽은 뒤에 가야 하는 괴로움의 세계.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수라도의 네 가지가 있다.

**혜안 (慧眼) : 오안의 하나. 우주의 진리를 밝게 보는 눈이다. 모든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차별의 현상계를 보지 않는 지혜이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합격발원 백일기도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예년과 같이 대학입시생을 위한 합격발원기도를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백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부처님 가피 속에 최선의 결과 기원합니다.

안 내

- **기 도 법 사 :** 정명 스님
- **입 재 일 :** 2020년 8월 26일(음력 7월 8일) 수요일
- **회 향 일 :** 2020년 12월 3일(음력 10월 19일) 목요일
- **장 소 :** 봉원사 대웅전
- **기 도 시 간 :** 매일 새벽 5시, 오전 10시 2회
- **기도동참금 :** 10만 원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 스님

※ 기도기간 중 백일기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종무소나 각 화주 스님께 신청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 원 사

우란분절 백중기도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백중(百中)은 부처님 당시부터 봉행되어 내려오는 불교의 명절입니다.
목련존자께서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효성심 하나로 구제하신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백중은 부처님오신날, 출가재일, 성도재일, 열반재일과 더불어
불교 5대 명절로 여기는 중요한 날입니다.
본사에서도 백중맞이를 봉행하오니
선망부모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마음으로 무루 동참하시어
부처님과의 선근인연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삼보전에 기원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20년 9월 2일(음력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봉원사
- **문 의 :** 각 화주 스님 및 종무소(02-392-3007~8)

※ 음력 7월 14일에는 개인으로 백중맞이를 모실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 원 사

생활 속의 불교 용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불교에서 전래되어 온 말이 대단히 많다. 그만큼 불교는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말도 불교에서 나왔나 싶은 용어들을 소개한다.

사자후(獅子吼)

부처님의 설법을 모든 짐승이 두려워하여 엎드리게 하는 사자의 울음에 비유하여, 그 위엄 있는 설법을 듣고 모든 악마가 굴복하여 귀의한다는 뜻이다. 또한 법사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부르는 청법가에도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후를 합소서, 감로법을 주소서~"라는 대목이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사자의 우렁찬 울부짖음이란 뜻으로, 크게 외치면서 열변을 토하는 연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면목(面目)

"면목이 없다", "면목이 서지 않는다", "진면목을 보여줘" 이렇게 사용되는 면목은 체면, 남을 대하기에 번듯한 도리, 사물의 상태나 겉모양, 얼굴의 생김새, 낯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불교에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의 본래면목(父母元生前本來面目)을 알면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했다. 여기서 본래면목은 '타고난 그대로의, 조금도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은 자태' 란 뜻으로, '사람마다 본디 갖고 있는 순수한 심성(心性)' 을 뜻한다. 면목은 단순히 얼굴과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이 없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불성(佛性)을 의미한다. 본래 면목 속에는 거짓이 없으니, 면목을 제대로 세워서 살아야 진실한 것이다.

건달(乾達)

불교 용어인 '건달바(乾達婆)' 에서 온 말이다. 건달바는 수미산(須彌山) 남쪽의 금강굴(金剛窟)에서 살며 제석천(帝釋天)의 음악을 맡아 본다는 신으로,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香)만 먹고 허공을 날아 다닌다고 한다. 이 건달바는 인도에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악사(樂士)나 배우를 가리키기도 하며,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한동안은 같은 뜻으로 쓰였다.

그러다가 노래나 배우(광대) 노릇을 하는 사람을 천시했던 우리나라의 풍습에 의해 건달바라는 말이 그저 할일 없이 먹고 노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달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통용되고 있다.

예배(禮拜)

한자어로 예의 례(禮), 절 배(拜) 자로서 '부처님께 예를 다해 절을 하다.' 라는 뜻이다. 또는 '공경하는 뜻을 몸으로 표현하는 형식' 을 말한다. 20세기 들어와 불교의 예배를 가리킬 때 예불(禮佛) 또는 법회(法會)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예배는 개신교의 종교의식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굳어졌다.

야단법석(野檀法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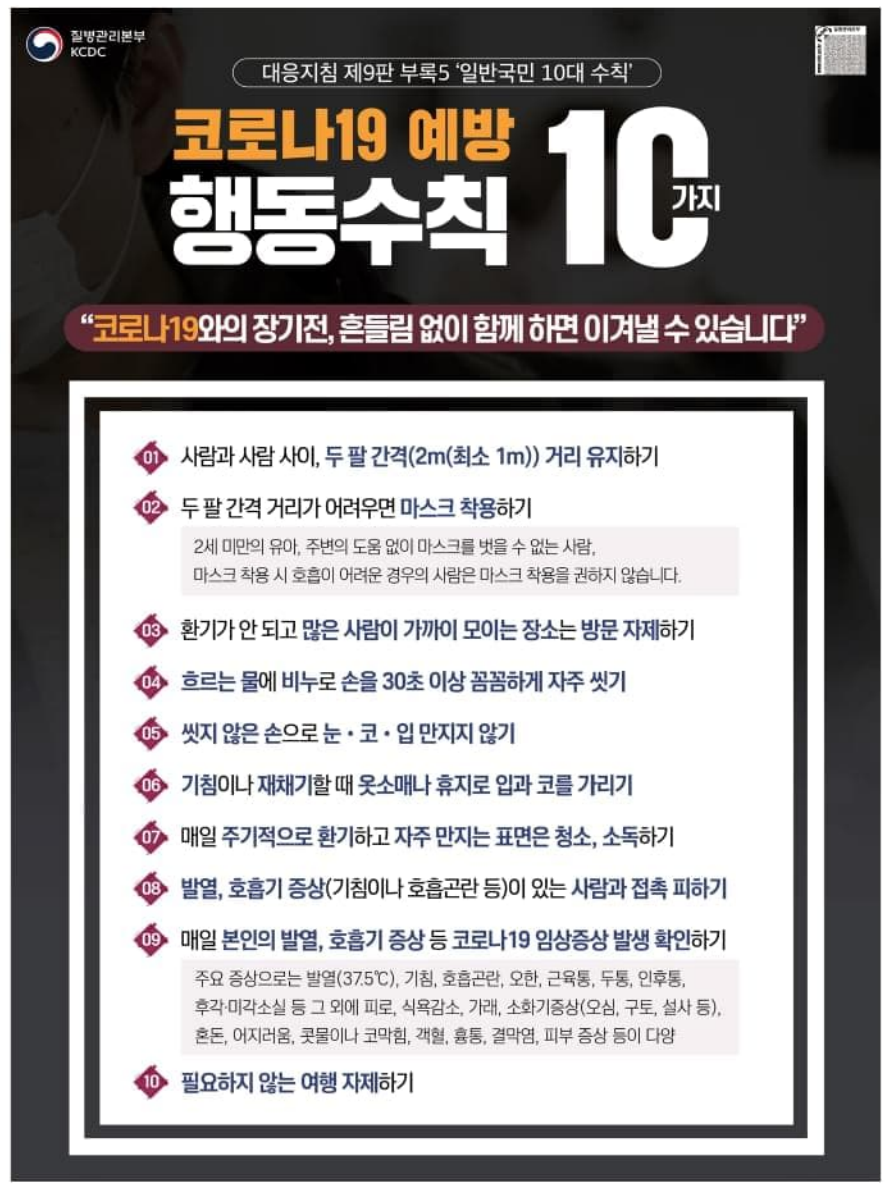
'야외에서 크게 베푸는 설법의 자리' 를 야단법석이라고 한다. 사찰에서는 큰 법회시에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넓은 대웅전 앞마당에 괘불을 걸어놓고 법회를 보곤 한다. 아무래도 큰 법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자연히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야단법석은 시끄럽다는 뜻으로 와전된 듯하다. 최초의 야단법석은 녹야원(鹿野苑)이다. 또한 가장 큰규모의 야단법석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취산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사찰의 모든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는 요즈음, 하루라도 빨리 야단법석을 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장로(長老)

'배움이 크고 나이가 많으며 덕이 높은 승려를 높여 이르는 말' 이다. 주로 지혜와 덕이 높고 법랍이 많은 비구를 통칭한다. 존자(尊者) 또는 구수(具壽)라고 부르기도 하며 불도에 들어온 지 오래된 스님을 기년장로(耆年長老), 불법에 정통한 고승을 법장로(法長老), 세속에서 가명으로 부르는 스님을 작장로(作長老)라고 하며, 〈증일아함경〉에선 출가가 늦었어도 실천이 올바른 스님을 장로로 존경을 담아 부르는 사례도 있다. 중국의 장편소설인 『서유기』에는 손오공이 저팔계와 사오정의 장로로 나온다.

십년공부(十年工夫) 도로 아미타불(阿彌陀佛)

도로(徒勞)는 헛되이 수고함을 뜻한다.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의 부처님이시다. 이 땅의 서쪽으로 10만 억 국토에 아미타불의 정토세계가 있다. 십년은 강산이 한 번 변하는 횟수다. 십년 동안 공부를 하면 자성(自性) 속에 있는 아미타불과 만날 수 있고 마음속에 있는 극락정토 속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십년 공부가 무너지기는 매우 간단하다. 한 번의 우둔한 판단으로 아귀, 아수라 축생에 바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오랫동안 공들여서 해 왔던 일이 허사가 된 경우' 를 뜻하는 말이다.



● 사보 후원금 ●

이 승 환 1만 원(인공 스님)
정각법회 12만 원(태호 스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전/생/이/야/기

본생경(자타카) 64, 65

자타카(Jataka)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알려졌고, 그 후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동서양으로 이어져 「이솝우화」와 「아라비안나이트」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판소리 「별주부전」으로 발전한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설화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도를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전파된 것은 1세기부터 6세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67년 축법란이란 분에서부터 285년 축법호라는 분의 생경(生經) 번역까지 5차례에 걸쳐 700여 편의 본생 설화가 한역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본생경(本生經), 일본에서는 본생담(本生譚), 중국에서는 본생주(本生注)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품성이 바른 청년의 전생 이야기

보살은 어느 바라문 집에서 태어났다. 그는 성년이 되자 바라나시의 한 유명한 스승 밑에서 학예를 배웠다. 당시 학예를 배우는 청년은 500여 명이었다. 보살은 그 청년들의 우두머리였다.

스승에게는 성년이 되었으나 출가하지 않은 딸이 있었다. 스승은 청년들의 품행을 조사해 보아 품행이 좋은 청년에게 딸을 주리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청년들을 모아 놓고 말했다.

"여러분, 이제 내 딸도 성년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내 딸을 출가시키려고 한다. 그러려면 결혼에 필요한 의복과 도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친족이 모르도록 내 딸을 위하여 의복과 도구를 훔쳐 오도록 해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사람 것은 받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것은 받아 주지 않겠다."

"좋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모두 찬성을 하고 각자 친족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서 결혼에 필요한 의복과 도구들을 훔쳐 왔다. 스승은 제자들이 훔쳐 온 것을 받아 차곡차곡 챙겨 놓았다. 그런데 유독 보살만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스승은 물었다.

"너는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느냐?"

"저는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무슨 까닭인가?"

"스승님은 누구에게나 들킨 것을 가져오는 것은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나 나쁜 일을 하는 데에는 비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살은 스승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 게송을 읊었다.

악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비밀이란 없네.
천지신명이 반드시 보건만
어리석은 사람들 그것을 비밀이라고 생각하네.

나는 비밀을 보지 못하나니
이 천지에는 빈 곳이 없네.
다른 이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는 거기가 빈 곳 아니네.

스승은 보살의 게송을 듣고 빙그레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여보게, 우리 집에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네. 나는 품행이 방정한 청년에게 내 딸을 주려고 그대들을 시험해 본 것이네. 내 딸은 자네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적당치 않네."

스승은 딸을 장식시켜 보살에게 출가시켰다. 스승은 혼례식 날 다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이 가져온 것은 다 그대들이 가져 가라."

도마뱀의 전생 이야기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도마뱀으로 태어났다. 그때 국경의 어느 마을 산 밑 지방에 다섯 가지 신통을 한 선인이 고행하면서 초막에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인이 오가는 길가에 개미집이 하나 있었다. 보살은 그 언덕 위에 살고 있었다. 보살은 자주 그 선인에게 가서 교훈이 깊고 뜻이 심오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다.

얼마 후에 선인은 마을 사람들을 하직하고 떠났다. 선인이 떠나자 위선자 선인이 와서 초막에 살았다. 보살은 이번에 온 선인도 유덕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를 찾아다녔다.

더운 여름철의 어느 날, 때 아닌 사나운 바람이 불어 개미집에서 개미들이 기어 나왔다. 그때 개미를 잡아먹으려고 도마뱀들이 돌아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가 도마뱀을 잡아, 식초와 사탕으로 양념한 도마뱀 고기를 선인에게 보냈다. 선인은 그것을 먹고 너무 맛이 있어 미각의 욕심이 생겼다. 그는 그것이 무슨 고기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도마뱀 고기라고 말해 주었다.

선인은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게는 언제나 큰 도마뱀이 오지 않는가. 그 도마뱀도 잡아먹으면 되겠구나.'

그는 냄비와 타락 기름과 소금 등을 가져다 한편에 두고 소매 안에 막대기를 숨겨 쥐고는 초막 어귀에 앉아 보살 도마뱀이 오기를 기다렸다.

저녁 때 보살은 선인을 찾아가려고 집을 나왔다. 그는 그 집 가까이 가면서 왠지 그 선인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다.

'이 선인은 평소와 달리 침착하지 않고 나를 보는 눈길이 이상하게도 험악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자.'

보살이 다가가자 도마뱀 고기 냄새가 풍겨 왔다.

'이 거짓 선인은 틀림없이 지금 도마뱀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미각의 욕심이 일어 나를 막대기로 때려잡아 요리해 먹으려는 것이다.'

보살은 그의 곁에 가까이 가지 않고 발길을 돌려 버리고 말았다. 선인은 보살이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저 도마뱀은 틀림없이 내게 살의가 있음을 안다. 그 때문에 가까이 오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놓아주지 않으리라.'

그는 보살 도마뱀을 향해 막대기를 던졌다. 막대기는 그의 꼬리에 맞았다. 보살은 재빨리 개미집으로 들어가 다른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고 그를 꾸짖었다.

"이 우매한 선인아, 너한테는 머리 묶음이 어울리지 않는다. 또 가죽 옷도 어울리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외면을 꾸몄지만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보살은 이렇게 거짓 선인을 꾸짖고는 개미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음식물 쓰레기 걱정 싹~"
음식물 바이오 소멸기 및 살균수 생성기

업소용 음식물소멸기

가정용 음식물소멸기

살균수 생성기 싹수

■ 캐나다 벤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녹색기술 인증기업"선정
■ 이노비즈 기업 선정, 정부 광고지원 대상 업체 선정

㈜ 조은생활 문의 : 김순복(010-3182-3445)

이달의 시

호 수

정지용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정지용/시인
1902년 충북 옥천 출생. 1926년 학조 창간호 『카페 프린스』, 일제강점기 『정지용시집』, 『백록담』, 『산문』 등을 저술

연꽃의 10가지 이로움(十種善法)

1. 이제염오(離諸染汚)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란다. 그러나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주변의 부조리와 환경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자라서 아름답게 꽃피우는 사람을 연꽃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2. 불여악구(不與惡俱)

연꽃잎 위에는 한 방울의 오물도 머무르지 않는다. 물이 연잎에 닿으면 그대로 굴러 떨어질 뿐이다.

물방울이 지나간 자리에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다. 이와 같아서 악과 거리가 먼 사람, 악이 있는 환경에서도 결코 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3. 계향충만(戒香充滿)

꽃이 피면 물 속의 시궁창 냄새는 사라지고 향기가 연못에 가득하다.

한 사람의 인간애가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고결한 인품은 그윽한 향을 품어서 사회를 정화한다. 인격의 훈훈한 향기는 흩트러짐 없이 근신하며 사는 생활태도에서 나온다.

인품의 향기는 폭넓은 관용과 인자함에서 나온다. 한자락 촛불이 방의 어둠을 가시게 하듯 한송이 연꽃은 진흙탕의 연못을 향기로 채운다.

4. 본체청정(本體淸淨)

연꽃은 어떤 곳에 있어도 푸르고 맑은 줄기와 잎을 유지한다.

바닥에 오물이 즐비해도 그 오물에 뿌리를 내린 연꽃의 줄기와 잎은 청정함을 잃지 않는다. 이와 같아서 항상 청정한 몸과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5. 면상희이(面相喜怡)

연꽃의 모양은 둥글고 원만하여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절로 온화해지고 즐거워진다.

얼굴이 원만하고 항상 웃음을 머금었으며 말은 부드럽고 인자한 사람은 옆에서 보아도 보는 이의 마음이 화평해진다. 이런 사람을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6. 유연불삽(柔軟不澁)

연꽃의 줄기는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래서 좀처럼 바람이나 충격에 부러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활이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지키고 사는 사람을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7. 견자개길(見者皆吉)

연꽃을 꿈에 보면 길하다고 한다.

하물며 연꽃을 보거나 지니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분은 꿈에 보아도 그날이 즐거운 사람이 있다.

어떤 분을 만나는 날은 하루가 즐겁고 일이 척척 잘 풀린다는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에게 길한 일을 주고 사는 사람을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8. 개부구족(開敷具足)

연꽃은 피면 필히 열매를 맺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꽃피운 만큼의 선행은 꼭 그만큼의 결과를 맺는다.

연꽃 열매처럼 좋은 씨앗을 맺는 사람을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9. 성숙청정(成熟淸淨)

연꽃은 만개했을 때의 색깔이 곱기로 유명하다.

활짝 핀 연꽃을 보면 마음과 몸이 맑아지고 포근해짐을 느낀다.

사람도 연꽃처럼 활짝 핀 듯한 성숙감을 느낄 수 있는 인품의 소유자가 있다.

이런 분들과 대하면 은연중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맑아진다. 이런 사람을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10. 생이유상(生已有想)

연꽃은 날 때부터 다르다. 넓은 잎에 긴 대, 굳이 꽃이 피어야 연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연꽃은 싹부터 다른 꽃과 구별된다. 장미와 찔레는 꽃이 피어봐야 구별된다.

백합과 나리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잡초 속의 보리와 콩인 듯 복잡해서 구별할 수가 없어 쑥맥일 수 밖에 없는 경우와 사람 자체가 모자라서 쑥맥이 되는 경우가 있다. 혼탁한 사회에서는 숙맥을 자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꽃 앞에서는 절대로 쑥맥이 되지 않는다.

연꽃은 어느 곳에서 누가 보아도 연꽃임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보아도 존경스럽고 기품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은거해도 표가 난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어 겸양해도 이내 알 수 있다. 옷을 남루하게 입고 있어도 그의 인격은 남루한 옷을 통해 보여진다. 이런 사람을 연꽃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여러분도 연을 본받아 연꽃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종선법(十種善法) 출처: 대장경의 '불설 제개장보살 소문경"

전시 연꽃 공양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연꽃은 오랜 수련 끝에 번뇌의 바다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른 수행자의 모습에 비유되고, 빛의 상징이며 생명의 근원인 꽃잎마다 부처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꽃은 정토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화생의 근원으로,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정토를 상징합니다. 이렇듯 연꽃은 생명의 근원, 대자대비, 윤회, 환생을 의미하는 꽃이라 하겠습니다. 봉원사에서는 경자년 여름을 맞이하여 연꽃 공양을 올립니다. 두루 동참하시여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전시장소** : 봉원사 특설도량
- **문 의** : 각 화주 스님 및 종무소(02-392-3007~8)
  부처님 법전 연꽃 공양(10만 원)

한국불교 태고종 봉 원 사

조상의 풍류와 낭만을 따라서… 정자(亭子) 기행 64

삼구정(三龜亭)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3호 / 경북 안동시

삼구정(三龜亭)

노모의 장수를 기원하며 효행으로 지어진 정자

삼구정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동오(東吳)라 불리는 봉우리의 머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 1985년 12월 30일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3호로 지정되었다. 북쪽으로는 학가산이 둘렀고, 동서남 세 방향으로 너른 들판이 펼쳐져 조망이 시원하게 트여있다. 남쪽으로는 낙동강의 지류인 곡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절경을 감상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자리한 정자이다.

정자가 지어진 해는 1495년(연산군 1)으로, 안동김씨 소산마을 입향조인 김삼근(金三近)의 손자 김영전(金永銓, 1439~1522)이 지례현감(知禮縣監)으로 있을 때 지었다. 당시 김영전은 88세의 노모 예천권씨를 즐겁게 하려는 효심에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삼구정을 건립하였다. 삼구정(三龜亭, 삼귀정)이란 정자 앞뜰에 거북 모양의 돌이 세 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북은 수명이 긴 십장생 중 하나로, 모친이 거북처럼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자식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삼구정은 그 동안 몇 차례 중수하였으며, 1947년에는 대대적인 보수가 있었다고 한다. 현판은 용재(慵齋) 이종준(李宗準)이 썼다.

건물은 흙과 돌을 사용한 토석담으로 둘러쳐져 있으며, 담 밖으로는 노거수가 몇 그루 자라고 있어 운치가 있어 보인다. 서쪽 담에 위치한 대문을 들어서면 정자가 자리를 잡고 있다. 왼쪽으로 거북 모양의 삼귀석(三龜石)으로 불리는 큰 돌 세 개가 보인다. 건물 기단은 비교적 큰 잡석으로 쌓았고, 집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은 자연석을 사용하였다. 그 중 2개소에는 석탑의 옥개석이 사용되었다. 사찰 석탑의 상부 쪽에 들어갔었음직한 옥개석은 조선조의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과 세도정치의 산물로 추증이 되는 모습이다.

건물은 정면이 세 칸, 측면은 두 칸으로 조성되었으며 바닥 전체를 우물마루로 시설하였다.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지붕으로 지어졌으며, 온돌이나 방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기둥 위에는 앙서(仰舌)로 된 쇠서(垂舌)를 하나 내어 보의 머리를 받친 초익공으로 마무리하였다. 건물 축조에는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네 모서리의 추녀 밑에는 활주를 세워서 지지하였고 서편 사래 끝에는 용머리 장식 기와 1개가 끼워져 있다. 담장 쪽으로 수백 년 된 노송들과 느티나무가 어우러져 있고 사방이 확 트인 삼구정은 뛰어난 개방감과 시원함으로 주로 여름 정자로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구정 현판을 중심으로는 사방의 벽에 삼구정 팔경에 대한 차운시판이 걸려있다. 주로 빼어난 경치를 감탄하는 시들로 채워져 있다. 일반적으로 현판은 정자 바깥쪽에 붙어있기 마련인데 삼구정은 특이하게도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용재(慵齋) 성현(成俔, 1439~1504)의 기문(記文)을 비롯해 많은 현판들이 걸려 있다. 기문에 의하면 형제들이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가까운 수령으로 부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정자를 지어 좋은 날, 좋은 때, 아침저녁으로 어머니를 가마에 태워 모시고 올라가 그 옛날 효자로 이름난 노래자(老萊子)처럼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워 노모를 즐겁게 해 드린 광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삼구정은 비록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중수와 중건을 거치면서 구조부 결구 양식의 원형은 다소 훼손되었지만, 다른 부분은 변함없이 잘 유지되어 있어서 조선 중기 정자의 건축 연구에 중요한 정자이다.

글/사진 선암 석인철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 봉원사 주차장 이용안내 ❀

봉원사를 찾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봉원사를 방문하시는 신도분들께서는
종무소나 각 화주 스님께 문의하시어 주차증을 발급받으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이 없는 경우에는 요금(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이 발생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일반요금** : 기본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 **무료주차** : 주차증 제시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 원 사

삼천불전(三千佛殿) 보수 · 정비 불사

부처님 말씀에 '불사(佛事)는 복전 (福田)이라', 모든 중생에게 복에 종자를 심는 큰 터전이라 하셨습니다. 천년고찰 봉원사에서는 삼천불전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불사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장애를 모두 극복하여 보수 ·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불교 전통문화 보전과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큰 공덕을 짓는 의미있는 불사에 많은 신도님들께서 동참하시어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 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봉 원 사

삼천불전 보수·정비 불사 계획도

◈ 모연부재목(시주내용) ◈

단위:만원

부 재 명	모 연 금	부 재 명	모 연 금
추 녀	500	서까래	20
사 래	200	개 판	20
도 리	100	부 연	10
장 여	50	기와(대와)	2

◈ 시주문의 ◈

종무소 : 02-392-3007~3008

⊠ 봉원사 자원봉사단 단원모집 안내 ⊠

귀의 삼보하옵고, 봉원사 도량 내 기와불사와 시주접수처 업무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봉원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군부대, 소년원 등 사회 각지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파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실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 원 사